



83th August 2015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WHERE IS GRACE CHANG?

Now or never!

2

COVER STORY

한국경제의 현황 및
사회적 문제점

3

FTA NEWS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불가 확대해석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발표

5

VOICES FROM THE FIELDS

조직변화를 만드는
긍정리더십

7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9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㉓

교육용으로 특별 할인을 받은
것이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국심 2003 관 0034)

11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이슬람 국가들의 명절
'라마단'

13

신한 소식

찾아가는 관세법인 활용
FTA 무료 교육사업

15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Now or never!*



장승희
 대표 관세사

20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긴 외국생활에서 돌아오신 그 분은 공적 사적 모임에서 볼 때마다 소년 같은 밝은 미소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별세 후 여러 날이 지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그 분을 알던 몇 사람이 모여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묵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미루어 두었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Apple의 창업주인 故 Steve Jobs는 매일 아침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진정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 인지,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막상 중요한 일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Now, 지금 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Never, 절대로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딸로 알려져 있는 한비야는 최근의 글에서 ‘할까 말까 할 때’ 무조건 하지 말기와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사지 말기!**’가 있다면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꼭 해야 할 것으로는 여행과 산책 그리고 공부하기**를 들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고백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자서전 집필을 시작하기, 과감히 직장을 옮기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기....

이번 달 Voices From The Fields는 **서울리더십연구원의 김영환원장의 ‘조직변화를 만드는 긍정리더십’**입니다. Physical energy와 intellectual energy 뿐 아니라 조직원으로부터 emotional energy와 spiritual energy까지 이끌어 내주는 leader는 우리의 조직은 물론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객의 발전을 위해 **‘찾아가는 FTA 무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고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신한관세법인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FTA 활용 뿐 아니라 관세, 무역, 통관관련 필요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교육이므로 ‘물어볼까 말까?’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故 김의기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소년 같은 밝은 미소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러봅니다.....

지금, Now 용기를 내어 **“하시는데”** 그런 8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그램의 용기』 한비야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Cover
Story

한국경제의 현황 및 사회적 문제점

I. 서론

현재 우리는 역사상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는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저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저 성장세를 지속시켜 내리막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적절한 대응으로 성장세를 되찾을 것인지를 기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처해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인 고령화, 청년실업 및 세계정세의 변화 등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고령인구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 등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통계청에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 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 년 기준 15%에서 2040 년에는 4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생산가능 인구 둔화와 직결되고, 핵심 생산인구(25 세~49 세)의 비중 감소는 경제 성장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률의 하락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공급과

수요에 있어 청년층이 중심이 되는 혁신산업에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아 혁신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에 혁신산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청년실업의 증가

청년실업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단순히 경제 현상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구직자들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인구로 편입되는 현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년실업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경기 후퇴, 일자리의 미스매치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극복은 어느 한 분야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 하리라 여겨진다.

3. 중국의 급격한 성장 등 세계정세의 변화

넓은 대륙만큼이나 위협적인 모습으로 중국은 개방 정책 이후 현재 무서운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성장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회이자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밀접한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등을 망라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후발국들의 거센 추격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제조업 등의 생산 및 수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필연적인 사안이 된지 오래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에 더불어 한-중 FTA 가 올해 6 월 1 일 협정문에 정식서명을 완료 후 협정 발효까지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한-중 FTA 가 양국 경제에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해 여느 때보다 더욱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III. 결론

이상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주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 보았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문제는 항상 우리 경제가 떠 안고 나아가야 할 사안이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점점 더 다양화 되고, 복잡해지는 사회적 현상 및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대응 방안 또한 다양화 되어야 함은 물론,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면밀함이 요구되며, 단층적이기 보다는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 졌을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현재 눈 앞에 놓여진 기로에서 내리막 길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상기에서 짚어본 문제점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점 등에 대한 정부측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현 박근혜 정부의 4 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 대한 여론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 연초부터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니 만큼 해당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관심이 바로 그 논란의 주제인 것이다. 그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단 하나의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비정규직 기간을 2 년에서 4 년으로 늘린다는 노동부문 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 특히 뜨겁게 발생하고 있는 여론에 빚대어 얘기해보면, 해당 정책 또한 몇몇 분야에서 부정적인 견지를 가지고 있듯이 어떠한 정책을 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상충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단 하나의 이견 없이 이상에 가까운 정책실현이 가능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며 노동자 또한 정당한 요구권한은 행사하되 너무 개인의 이익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유연성을 갖추고 스스로 적절한 일자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듯 상반된 입장을 가진 양측에서 각자 한 발자국씩 물러서는 양보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타협이라는 노력을 통하여 서로가 적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도모할 때에 국민 경제 전반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이번 계기로 이러한 한국 경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소 라

srpark@customsservice.co.kr

자유 무역협정관세 재적용 불가 확대해석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발표

1. 개요

2014년 11월,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재적용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하여 세액이 보정, 수정 또는 경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재적용 불가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협정관세 '재적용 불가'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최초 협정관세적용 신청한 내용에 대한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관세청은 2015년 7월 협정관세 적용 오류발생 시에 정정절차 등 업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지침을 발표하였다.

2.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불가지침 발표 (2014년 11월)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 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신청 허용기간(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3. 협정관세 적용오류 시 업무처리 지침 발표 (2015년 7월)

(1) 적용범위

FTA 관세특례법 제 10 조제 1 항 또는 제 1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않은 물품

(2) 적용오류형태 및 처리방법

①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의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처리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로서,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수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하여 법 제 13 조제 2 항에 따른 서면조사 통지를 받기 전날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 24 조 2 항 4 호에 따른 과태료부과함(500 만원 이하). 수정신고(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신청, 승인)절차는 관세법 제 38 조(신고납부), 제 38 조의 2(보정) 및 제 38 조의 3(수정 및 경정)을 준용하여 처리

② 원산지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의 경우 처리

가격변경 및 세번변경 등이 있어도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수리하고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수정신고(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신청, 승인)절차는 관세법 제 38 조(신고납부), 제 38 조의 2(보정) 및 제 38 조의 3(수정 및 경정)을 준용하여 처리

③ 원산지심사물품에 대한 오류 발견 시 처리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출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를 하는 세관장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 16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반드시 보정을 요구하여

야 하며, 보정요구 기간은 5 일 이상 30 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보정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인정하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미보정하거나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협정규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배제하거나 검증 의뢰함.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출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세율 인정

4. 맺음말

수입 시 최초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내용 및 품목 분류 등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세관으로부터 수정할 것을 통보 받은 경우, 수입자는 정해진 기한내에 상기의 처리지침에 따라 수정절차를 거쳐야만 협정관세를 재적용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내에 수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정 전 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최초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또는 최초 협정관세적용신청이 수리되지 않아 최초 협정관세적용신청이 배제된 경우에는 세액이 정정된 이후에 협정관세의 재적용이 불가능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병 관

bkpark@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조직변화를 만드는 긍정리더십

“아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돼요?” 퇴근길에 동승한 차 속에서 조과장이 들려준 이야기였다.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밤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가 안타까워 아들이 하소연을 했었던단다. “요즈음엔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녁 일찍 들어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주말에도 함께 놀아주니까요. 저도 성장을 위한 책을 읽을 기회가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2008년 2월 효성그룹의 연수원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3년간에 걸친 조직변화의 실제사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직변화를 이루는 핵심은 구성원 참여의 방향, 강도와 지속성이다. 이를 위한 조타수, Motivator 및 Energizer 역할은 리더의 몫이다. 리더십은 변화의 절대적 성공/실패 요소이다. ‘긍정리더십’,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비밀전략이다. 조직변화를 희망하는 리더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Motivate people

Physical Energy 점심시간마다 배드민턴을 치며 땀을 빼고, 간식을 피자, 순대에서 야채와 과일로 바꾸면서 사우들의 허리띠가 점점 줄어들었다. 오후에는 소녀시대가 나오는 체조동작을 화면에 띄워놓고 함께 따라 했다. 툼툼이 계단 오르기로 부족하기 쉬운 운동량을 보충하고,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에 붙이고 허리와 목을 곧추세우라고 서로 격려했다.

Emotional Energy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는 상품도 다양하여 도서 상품권도 있었지만, 1시간짜리 특별휴식 쿠폰도 있었다. 특히 정원 가꾸느라, 청소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 종종 정성이 담긴 선물과 더불어 감사인사를 드렸다.

Intellectual Energy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에도 열중이었다. 각자가 MBTI, DISC Facilitator 자격이나 TOEIC, Executive MBA, 전문 석/박사과정도 거침없이 도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무실 벽에는 사우들이 딴 각종 자격증 액자들이 뽁뽁하게 걸렸다.

Spiritual Energy 매년 연초에는 개인비전발표회도 가졌다. 서로 약속과 희망을 공유하고 서로 진심으로 응원해주었다.

Shape the path

Task Sharing 10 분간의 Standing meeting 시간이다. 오늘의 주요활동을 공유한다. 지원을 요청하면 서로가 돕겠다고 나선다. 화이팅을 외치고, 박수와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Flow 몰입의 시간이다. 각자 핵심업무를 처리한다. 자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 받는다. 이 시간엔 회의, 미팅, 잡담, 면담이 없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간이다. 몰입 후의 만족감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Work-out 협력해서 해결하기 시간이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사전에 개요를 이메일로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30 분 동안 적극적으로 토의하며 도움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수원 내에서는 거의 보고서를 만들지 않는다. 실무자가 업무실행과 책임의 주체이고 리더들은 지원해주는 형태이다. 보고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적 서류 만들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근무시간에는 100m 달리기 하듯 전력을 다해 질주하고 퇴근시간 정각에 별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다.

Direct to the bright spot

그간 연수원 구성원들이 함께 일군 성과들에 가슴

뿌듯하다. 그룹의 **Mission/Core Values** 를 새롭게 만들고 전파활동을 벌여왔다. **Coaching Leadership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500 명 가까운 팀장들이 교육훈련 기회를 가졌다. “우리 팀장님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살맛 납니다.” 호응이 대단하다. 150 여개 조직에 **학습조직 체계**를 정착시켰다. 대부분 **학습과정의 Format** 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수강형식에서 참여와 토론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들도 적용하였다. 연수원 구성원들의 역할이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교재준비와 강의를 관리하는 Clerk 에서 Workshop 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Consultant** 로의 변신이다. 어떠한 과제라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여기저기에서 열정적으로 토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제해결의 수준을 높여나갔다. 가끔씩 밤새워 일하면서도 행복해들 했다. 모두들 부쩍 성장한 모습이 있었다.

“Tera 로 갑시다!” 이제는 Mega 도 넘고 Giga 수준도 올라갔으니 욕심을 부려보자고 했다. 이직률 높고 기피대상이었던 조직에 전입 희망리스트가 쌓여가고 있었다.

조직변화에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겨냥해야 한다. **‘자기 중요감’**이다. 누구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스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자기 의사결정권,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면 된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서울리더십연구원

원장 김 영 환

myhkim@icloud.com

관세 무역 관련 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33개 품목 중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및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각기, 열 충격기 및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국제행사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

정을 정비하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역원활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자

2015년 7월 16일

«신한's Opinions»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수입하시는 고객사는 반드시 추가, 삭제된 감면 물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세 감면율은 80%이며, 감면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세사를 통해 확인 후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사후관리 위탁물품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위한 사
후관리제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위탁물품' 관리 감독 강화
○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 위탁 취소 근거 신설
(제25조)
- 위탁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 사후관리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관리위탁물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
화

○ 사후관리 재위임 위탁 시 사후관리 점검 의무
신설(제28조)
- 사후관리 수탁기관이 수입추천기관 등에게 사
후관리업무를 재위임 위탁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
정 여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사
후관리위탁물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 「관세법」 제95조 개정('11.1.1)으로 방위산업용
품이 감면대상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제3조, 별표 2호)

○ 「도로명주소법」 개정('15.8.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체계 변경(6자리
→ 5자리)(별지 16호)

3. 시행일자

2015년 7월 23일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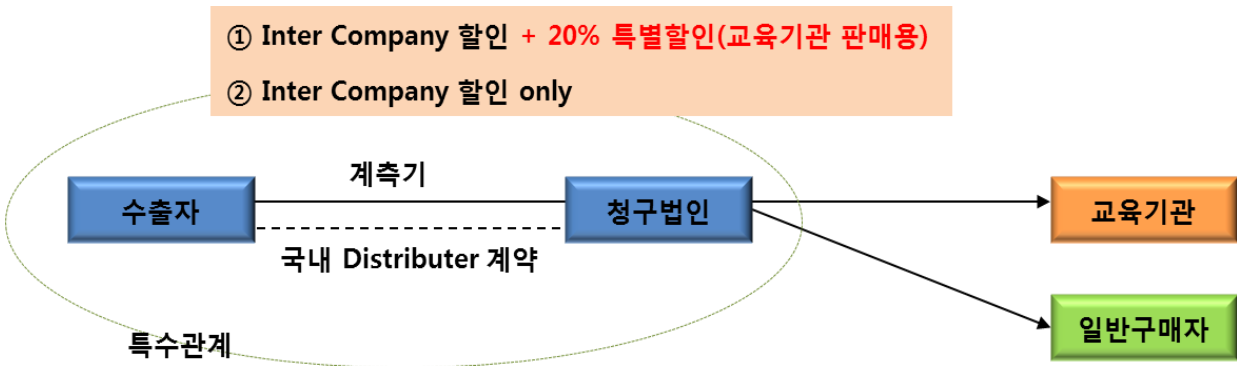
(isyoo@customsservice.co.kr)

«신한's Opinions»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일부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용도외 사용 및
양도·양수 금지기간 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하여 위탁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취급하는 고객사는
사후관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추징 및 처벌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고객사께서는 사후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용으로 특별 할인을 받은 것이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국심 2003 관 0034)



I.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국내 Distributer 계약을 체결하여 계측기(이하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일반 판매용 물품의 경우 내부자 거래용(IC)할인이 적용되며, 교육기관 판매용 물품에 대해서는 IC 할인가격에 20% 추가로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청구법인은 특별 할인 받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하여 수리 받았으나, 처분청은 특별 할인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의 할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쟁점사항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특별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

III.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교육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이 적용되므로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어 특별할인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2) 처분청 주장

교육기관 판매용 물품은 일반 판매용 물품과 동일하지만, 교육기관에 납품을 전제로 받은 가격 할인이므로 이는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해당되어 특별할인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IV. 관련 법령

관세법 제 30 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③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 30 조 제 3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 22 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① 법 제 30 조 제 3 항 제 1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V. 판결

교육판매용 물품과 일반 판매용 물품은 물건자체의 내용과 사용상의 차이점이 없음에도 수입 후 교육기관에 판매하여야 한다는 처분의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 할인 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VI. 추가 견해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처분·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해당 물품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사례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이 수입하더라도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관례(practice)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제한이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란

hrkim@customsservice.co.kr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이슬람 국가들의 명절 '라마단'

요즈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동 수출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문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슬람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슬람 국가들과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필히 염두해 두어야 하는 라마단에 대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라마단(Ramadan)이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의 라마단은 태음력을 기본으로 한 이슬람 달력 상 9 번째 달에 시작한다. 그 시작과 끝은 모두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을 기점으로 정해지게 되며,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매년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라마단은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는 종교적 기간이며, 보통 한 달 동안 이어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슬람 교도들은 무려 한 달 동안 단식을 하며, 라마단이 끝나면

오랜 단식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드 알 피트르"(이드, 하리라야 푸아사 등으로 불림)라고 불리는 축제가 1주일간 진행된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기간을 휴일로 지정하여 한국의 설빔 문화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친지와 친구들을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 교도인 나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집트, 터키, 이란, 수단,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이라크,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시리아, 카자흐스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세네갈, 튀니지, 기니, 소말리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시에라리온, 리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차드, 레바논, 쿠웨이트, 알바니아, 마우리타니아, 오만, 코소보, 잠비아, 바레인, 코모로, 카타르, 지부티, 브루나이, 몰도브 (47개국)

2. 비즈니스 시 유의사항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절식, 절음으로 인해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단축되어 오전 9시 출근, 오후 2시 퇴근인 경우가 많으며, 이슬람이 국교인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어우러진 말레이시아도 이와 비슷하게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비즈니스 차 이슬람 국가를 방문을 하게 되더라도 단식으로 인해 점심식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해가 지고 난 뒤에 저녁식사가 가능하지만 보통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미팅을 잡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 미팅을 어렵사리 잡더라도 식사는 물론이며, 간단한 다과조차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러한 이유로 라마단과 이드를 합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3. 라마단과 물동량 급증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 한달 가량의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단축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통관 지연 및 지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마다 라마단 전에는 이러한 지체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보낸 화물들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하고, 라마단이 끝난 후에는 밀린 화물들을 처리하느라 통관 및 물류가 지체된다.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아카바항의 경우, 물류처리 활동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동률이 90%에 달하며, 평소 약 5일이 걸리던 통관이 올해에는 4~6 배 정도로 그 기간이 늘어났다.

이슬람 국가 중 수출 상위 5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도 기준 / 단위: 천불(USD 1,000)

번호	국가	수출금액	수입금액	주요 수출품목
1	인도네시아	11,360,656	12,266,260	석유·석탄, 철강, 기계·컴퓨터, 플라스틱, 전기제품, 편물, 선박
2	사우디아라비아	8,287,511	36,694,536	자동차, 기계·컴퓨터, 전기제품, 철강, 철강제품, 유기화합물
3	터키	6,664,732	655,159	플라스틱, 기계·컴퓨터, 광학기기, 철강, 자동차,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4	이란	4,162,243	4,578,119	기계·컴퓨터, 전기제품, 플라스틱, 철강, 광학기기, 자동차, 지와판지
5	이집트	2,363,828	531,711	자동차, 기계·컴퓨터, 전기제품, 플라스틱, 광학기기, 유기화합물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우리나라와 이슬람 국가와의 교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동차 및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동항로에서 높은 물량 점유율을 차지하던 이란이 경제제재로 인해 움츠리고 있었으나, 이란을 압박하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하듯이 이란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KOTRA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 바이어의 74%가 제재해제

이후 한국기업과의 거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슬람 경제권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서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효 선

hskim@customsservice.co.kr

신한 소식

찾아가는 관세법인 활용 FTA 무료 교육사업

FTA 협정 체결 및 발효가 증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1:1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관세법인 활용 FTA 교육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바랍니다.

◇ 개요

- 주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주관 : 신한관세법인
- 사업기간 : 2015. 06. 01 ~ 2015. 11. 30
- 대상 :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선착순 400 개 업체)
- 신청·접수 및 문의 : 신한관세법인을 통한 직접 신청 (www.customsservice.co.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이메일로 신청
 담당자 : 이동현 관세사, e-mail : shinhan-fta@shcs.kr, Tel. 070-4343-7777 Fax. 02-3448-1184

◇ 교육 내용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등 서류작성, 사후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준비, 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이며, 기본 교육(공통교육) 이외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선택교육)하여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 공통교육 (1 개 과정)
 - FTA 원산지 이론
- 선택교육 (6 개 과정 중 선택)
 -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 FTA 원산지 사후검증 /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 FTA 관련 서류 작성실습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작성실습
 - FTA 수출입통관



자세한 내용은 신한관세법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한국경제의 현황 및 사회적 문제점



박 소 라 관세사
sr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전자부품/화학약품 통관 전문
 - 환급 컨설팅 전문

FTA News-

자유무역협정관세 제적 용 불가 확대해석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발표



박 병 관 관세사
bk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前 무역상사 해외영업부 (2004-2012)
 - 섬유/의류 통관 및 품목 분류 전문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Voices From The Fields-

조직변화를 만드는 긍정리더십



김 영 환 원장
myhkim@icloud.com

PROFILE
 - 現 서울리더십연구원 원장
 - 前 효성그룹 인사담당 임원, 연수원장
 - 前 CJ 그룹 인재원 부원장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 입 세 관세사
isv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건설/기계 통관 및 품목분류 전문
 - 환급컨설팅 전문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㉔ 교육용으로 특별 할인을 받은 것이 처분·사용상의 '라마단' 제한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김 혜 란 관세사
h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외환 컨설팅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원산지관리사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이슬람 국가들의 명절



김 효 선 대리
hs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 원산지관리사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